

환경친화형 기업으로 도약

2천년까지 세계 30대 석유화학회사 진입

94년 NCC 공장의 준공으로 석유 화학 원료에서 가공 플라스틱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혁신 추구를 통해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주)(대표 이종학)은 세계화를 위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국내최초 생산자(PVC-66년, LDPE-72년, VCM-72년, EDC-80년, LLDPE-86년, ECH-91년)로 한국 석유화학의 산 역사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중심의 현 사업구조를 정밀화학, 기능성 수지사업 및 자동차 부품사업 등으로 다각화하는 전략과 함께 활발한 해외 투자를 통한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95년도에는 매출액 1조5천억원(잠정), 경상이익 900억원(잠정)을 달성, 전년대비 2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국내 석유화학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세를 나타내 다른 석유화학 회사들이 목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과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종합화학의 사업내용은 PE(폴리에틸렌),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C/A(소다/염소),

NCC(나프타분해센터) 사업 등 원료부문과 소비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에머럴드, 그랑프리, 크리스탈 등으로 알려진 바닥장식재와 조립식 창틀 홈사시, 그리고 업계 최초로 일본에 수출하게 된 조립식 일체형 욕실인 SBR(System Bath Room) 등 건축자재 가공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용 부품, PMMA, 고기능성 FILM 등의 사업부문도 수송 및 기타 산업자재 업계에서 최고의 품질수준을 인정받아 향후 매출액의 대폭적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화종합화학의 설비 증설계획에 따르면 95년도에는 외부장식용 DECO-SHEET, 플라스틱 도어인 홈도어 사업, MMA계 인조 대리석등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96년에는 기존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HX 사업, 국내시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C/A, EDC, VCM의 시설확대와 차별화 제품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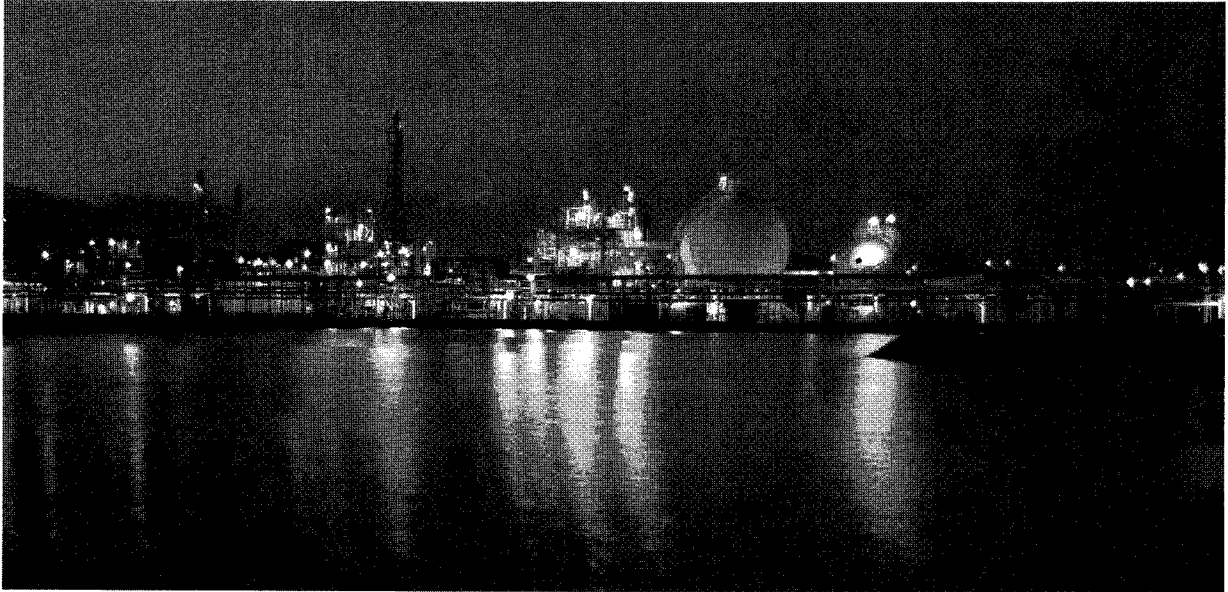
또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로 KT 마크를 획득한 영구대전정전기 방지제 PASO사업, 역시 국내 신기술인 보광성 필

름 첨가제 사업과 가공부문의 부가 가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가스제의 원료로써 한화종합화학의 원료부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지금까지는 LG 화학이 독점생산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증가로 매년 많은 물량을 수입해 오고 있다) 옥탄을 9만톤 사업이 9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외에 한화종합화학에서는 정밀화학, 기능성수지, 신소재 부품, 환경사업 등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며 제품의 고급화, 기능화, 다양화를 추구하고 2000년까지 세계 30대 석유화학회사에 진입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더욱이 세계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기술축적 사업의 국제적 전개와 수익성 약화 분야의 개발도상국 이전, 첨단 기술습득을 위한 성장산업 진출을 설정, 추진하여 현재 매출의 15%선인 수출을 30%선까지 끌어올리고 해외 투자법인에서의 매출액을 기존의 3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인재양성과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최고 경영자의 방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한화종합화학의 여천공장 야경

침에 따라 한화종합화학은 특히 해외현지 채용을 늘리고 지역전문가 양성제도, 국제화 기초훈련등을 통해 세계화 추진역량을 축적한다고 한다. 동시에 기술,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액을 선진기업 수준으로 과감히 늘림으로써 주력제품의 기술 수출력을 보유하고 기술자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94년 인도 TPL사에 독자기술로 상업화한 ECH 기술을 수출한 것, 95년 세계최초로 대전 방지용 코팅제 개발에 성공한 것과 독자기술로 스케일 방지제를 개발한 것 등은 한화종합화학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미래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침에 따라 주창된 그룹 차원의 ECO-2000 운동을 기본이념으로 환경친화형 기업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장별로 부단위의 환경조직을 구

성했으며 본사에는 환경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ECO-2000팀).

또한 2,000년 매출액 4조원, 2005년 매출 120억\$의 경영목표를 달성, 세계 일류의 종합 석유화학회사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사내의 엘리트급 인재들을 선발, 전사적인 전략수립과 실행 및 평가를 전담하는 21세기 비전팀을 구성하고 VISION 달성을 위한 전략의 세부화 및 실천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석유화학 경기가 반짝하며 국내 석유화학 회사에 기사회생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석유화학 경기동향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데 기인한다.

즉 한화종합화학의 현재 사업구조는 규모면에서나 기술력 측면에서 국내 최고는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선두위치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경쟁 체제가 세계화되는 최

근의 상황에서는 생존에 대한 위기 의식과 공격적 경영의 필요성이 최고 경영진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석유화학경기는 (최근 수년간 전문가들의 예측이 모두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나 경영전략의 장기적 방향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 매출목표 달성과 세계 30대 화학회사 진입이라는 장기비전을 실현해야 하는 한화종합화학으로서 세계 일류화학 회사와 국내 경쟁사들의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원과 고객이 함께 공감하는 성장지향적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인식, 그 사명을 각 부문의 엘리트 사원들로 구성된 비전팀의 전략 T.F.T를 구성, 앞으로 한화종합화학은 늦어도 창립기념일인 10월 이전에 사내 임직원은 물론 외부 고객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선포할 계

획이다.

96년도 매출목표는 1조5천7백억 원 경상이익은 700억원으로 95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경기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한 목표치이다.

주요 마케팅 전략은 사업부제의 확립과 확대를 통해 영업, 개발력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성장산업에 대한 조기 진입을 추구하는 진입전략과 경쟁사 출현에 대비해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개념의 방어전략, 그리고 중화권 일본시장을 집중공략하는 수출전략과 단순 생산자의 위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TRADING 기능의 확대 등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제품에 대한 판매비중을 높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미지 전략광고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구조개혁 투자전략에 따라 기존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혁, 고부가가치 사업 투자 확대, 신규유망사업에 대한 기회선점 등의 투자방향을 설정해 놓고 96년도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저리자금의 확보 등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기술외교를 통한 소외기술의 확보, 신규사업용 부지확보와 사업조직 강화, 방법 및 시기 다양화에 의한 기술인력 확보 등의 추진과제를 지원 대책으로 수립해 놓았다.

한편 내부핵심역량 강화라는 또 하나의 개혁과제는 전국 품질경영대

회에서 단일업체로는 국내 최초로 대통령상 최다수상(8개), 전사업장 전품목 ISO-9002 시리즈 획득으로 대표되는 품질경영체제 확립목표와 PVC 수용성 스케일(녹) 방지제 개발과 국산 전해조 개발로 대표되는 기술자립 목표, 그리고 NO CASH 전산 지불시스템이 본사 시행, BR(BUSINESS REENGINEERING)팀의 구성과 운영을 통한 정보화 체제 구축, 구매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선진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95년도에 성공적으로 달성한데 이어 96년에는 품질경쟁력 국제화, 품질경영상 도전, 고객 불만처리 전산 시스템 구축, 기술자립의 확대, NO CHAS 시스템의 전사 확대, 업무 PROCESS 혁신의 지속적 추진, 중장기 벤치마킹 추진 등의 실행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도약적 사세확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문화 혁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강화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혁신 마인드 조성이라는 실행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95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임원 현장근무, 경영설명회 개최, 임원독서제도, 부서장 학습제도, 제3의 개혁 활성화의 달 운영을 96년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홍보 조직 구축과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홍보기능 활성화, 기업 이미지 조사와 이를 통한 이미지 광고전략 수립, 해외홍보의 추진, 사내보 발간과 청년임원회의 활성화, 부서 팀 미팅제 확대시행, 기업문화의 진단을 통한 조직활성화 방안 마련, 임직원 자녀캠프를 개설하여 가정과 직장을 하나로 묶어주며 근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플렉시블 타임제(변형근무제)의 개설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화중합화학의 목표는 결코 지금의 위치나 현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초일류 석유화학 회사로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고객,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 특히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진 환경 안전시스템 구축의 추진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안전에 관한 한 세계 제1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듀폰사의 안전진단 기준을 도입하여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을 전사업장에 확대하며 울산 1공장의 BS 7750 획득을 계기로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 96년부터 실시되는 ISO-14001 시리즈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또한 여천공장이 95년 12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울산 1·2, 진해, 부강공장도 환경친화적 기업 지정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환경단체, 학생 등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환경교육장으로 당사의 시설을 개방,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물론 모범적 시민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이밖에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전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사업장 안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